

장백산천지

제 241 호

2014 년 10 월 23 일

목요일

새 증거: 장쩌민, 파룬궁수련생 대상 장기적출 직접 명령

[밍후이왕] 며칠 전, ‘파룬궁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WOIPFG)’에서 전 중공해방군 총후근부 위생부부장 바이수중(白晝忠)이 군대에서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로 이식을 한 범죄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녹음에서 바이수중은 중공의 전 당권자 장쩌민(江澤民)이 직접 파룬궁수련생들의 장기적출을 지시했다고 자백했다.

이는 2013년 8월 바오광(鮑光, 가명)이 해외 마스크에 폭로한, 2006년 당시 상무부장을 맡고 있던 보시라이(薄熙來)가 독일을 방문할 때 장쩌민이 파룬궁수련생 장기를 적출하라고 명령했다고 자백했던 증언과 부합한다.

2014년 9월, 중공해방군 총후근부 전 위생부장 바이수중이 WOIPFG 조사원에게 시인했다. "당시 장 주석이…… 한 가지 지시가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바로 장기 이식…… 지시한 후, 파룬궁을 반대하는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바로 신장 이식을 하는 것은 단지 군대뿐이 아니고……"

아래는 이번 조사 중에 녹음한 일부 대화 내용이다.

바이수중: "여보세요?"

조사원: "전 총후근부 위생부 바이수중 부장이십니까?"

바이수중: "네, 당신은 누구니까?"

조사원: "우리는 한 가지 상황을 파악하려 합니다……"

바이수중: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조사원: "……네?"

바이수중: "어느 시간, 무슨 일에 대한 겁니까? 말해보세요."

조사원: "다름 아니라 당신이 총후근부 위생부장을 담임하고 있을 때, 감금 중인 파룬궁수련생에게서 장기적출 수술을 한 일은, 당시 총후근부장 왕커(王克)가 내린 임무입니까? 아니면 군위원회에서 직접 내린 명령입니까?"

바이수중: "그 때는 장(江) 주석이었습니다."

조사원: "네."

바이수중: "지시가 있었는데 바로 말해서,"

조사원: "네."

바이수중: "이런 일을 벌이자고 말했는데, 바로 장기이식이죠."

조사원: "네."

바이수중: "바로 사람들이 신장을 팔고 수술하고, 이걸……말하자면 신장 이식을 하는 것은 단지 군대뿐이 아니었습니다."

조사원: "우리도 일부 정보를 수집했는데, 그 때 연근부(聯勤部)에서 감금되어 있는 파룬궁수련생들의 장기 공급체를 책임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바이수중: "이건 그때 말로는, 내가 생각하던데, 적어도 내 기억에는 당시 장쩌민 주석이 지시한 후 파룬궁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조사원: "당신들은 그 연근 1 지부, 2 지부와 40 지부를 포함해, 당신들이 책임진 군병원은 직접 지도하거나 아니면 지도를 받거나 하는 관계가 있었습니까?"

바이수중: "우리는 이런 몇 개 군의대 병원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총후근 직속단위인 몇 군의대학에서 거둬 요구해…… 그때 장(江)이 이 문제를 매우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조사원: "누가 이 문제를 매우 중시했다고 했습니까?"

바이수중: "장(江)이죠, 당시 장이 임직 기간이었고,"

조사원: "네."

바이수중: "또 이 문제를 매우 중시했는데 모두 지시한 것입니다."

조사원: "당신은 98년부터 2004년까지 담임하고……"

바이수중: "맞습니다, 맞아요, 위생부장, 총후근 위생부장을 98년부터 2004년까지 맡았습니다."

조사원: "좋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기까지만 파악하겠습니다."

바이수중: "네, 네, 좋습니다, 이후에 기회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

으면 저에게 물어십시오. 문제없습니다."

조사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납시다."

바이수중: "다시 만납시다."

이에 대해 ‘파룬궁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 책임자 왕즈위안(汪志遠)은 말했다. "중공 장쩌민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해 이득을 채웠는데 군대와 무장경찰이 주체가 됐고 특히 군대가 주요 집행기구였다. 이 집행기구의 최고 전문 지도자로서 바이수중은 장쩌민의 대학살 명령을 전달하고 집단학살죄를 실행하고 집행한 주요한 책임자다. 그가 임직한 98년부터 2004년은 바로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고 수련생들의 장기를 적출하던 최고조였다. 당시 상황을 그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똑똑히 말했다. 지금 발표한 것은 증거의 일부분인데 우리는 완벽하게 녹음해 국제법정에 제출할 것이다."

편집자주해: 녹음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돌파 봉쇄사이트 공구를 통해 동타이왕에 들어간후 다시 밍후이왕을 방문하면 된다. ◇



▲최근 미국 전문의학월간 ‘미국의 식잡지’가 인터넷 사이트에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형수의 기관적출’이라는 문장을 발표했다. 문장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 장기적출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중공은 아직까지도 인체에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멈추려는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장은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이런 윤리에 위배하는 사악한 행위를 제지할 것을 호소했다.

지린성 화룡시 정법위 서기 리춘직(李春直)의 악행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길림성 보도) 2014년 8월 말, 길림성 화룡시 '610' 악도는 아동저수지(亞東水庫)에서 세뇌반을 조직했는데, 파룬궁수련생 류쥔(劉俊)을 팔가자파출소에 의해 세뇌반으로 납치됐다. 소식에 따르면, 그곳에는 또 다른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감금당해 있다고 한다. 화룡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 두목 리춘직은 여전히 그곳에서 박해를 주도해 그의 악행을 계속했다.

리춘직(남, 조선족)은 길림성 화룡시 정법위서기이며 장쩌민(江澤民) 강패 집단을 바싹 뒤따라 현지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주요한 책임자로, 세뇌반을 획책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아동 저수지 세뇌반에서 한 차례 잔인하게 박해한 뒤, 한 악도는 그에게 “리 주임(리춘직), 만약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해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리춘직은 당시 정원 안에 서 있었는데, 눈이 시뻘게졌다.

2012년 7월, 화룡시 '610'은 아동저수지에서 세뇌반을 조직했는데, 리춘직은 세뇌반의 정치부 주임이었다. 2012년 7월 22일, 화룡시 서성진(西城鎮) 이도(二道) 9대 촌민 파룬궁수련생 펑메이(馮梅)는 시장에서 과일을 팔다가, 서성진파출소의 송샤오웨이(宋曉偉)와 경찰 추이(崔)모 등 6~7명에게 강제로 아동저수지 세뇌반으로 납치됐다.

세뇌반 악인은 펑메이에게 대법과 사부님을 모독한 녹화 테이프를 강제로 보게 압박했다. 만약 보지 않으면, 유다(배신자) 박영자(樸英子)는

펑메이의 다리를 책으로 때렸고, 또 그녀의 손 위를 바늘로 찔렀다. 당시 펑메이는 시달림을 당해 머리가 흐리멍덩하고 심장이 괴로워서, 병원에 가겠다고 요구했으나 리춘직은 답하지 않았다.

세뇌반의 유다는 또 펑메이를 2층으로 끌어다가 장형(丈刑)을 가했다. 2~3미터인 두 가닥의 천으로 만든 띠를 가져다가, 띠의 한쪽은 한쪽 발을 묶어서 두 다리를 쌍 가부좌시켰고, 또 손 위에 띠의 다른 한쪽을 묶고 두 팔을 힘껏 들어 뒷면에 놓이게 했는데, 두 가닥 끈은 마치 쯩즈(粽子)를 싸듯이 몸을 단단히 묶었다. 사오링(紹玲)은 “당신을 2층으로 끌어가지 않는다면, 당신이 견딜 수 없이 정도로 아파 소리를 마구 질러 그 때에 다른 사람이 들을까 두렵다.”라고 말했다. 이 형벌을 받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 당시 그녀는 흥문마저 2~3 촌이나 나왔다고 했는데 그 잔인한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날 저녁 7~8시 경, 펑메이는 2층에서 그녀 옆방에서 몇 사람이 한 사람을 끌고 당기는 소리를 들었는데, 끌리는 사람은 마치 입이 막혀 우우하면서 소리를 외치지 못하는 듯 했다. 오미화(吳美花)는 낮은 소리로 “이것은 누군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고 말하면서 문을 열고 또 한 번 보았다.

잠깐 후, 그 방 안에서 곧 사람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전해왔는데, 소름이 끼쳤다. 대략 2시간 쯤 지나 그 사람이 뺨을 두 대를 맞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주사함에 사용하는 작은 유

리병을 휴지통에 던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두 사람이 나와 가볍게 방안 문을 닫더니, 옆방 안에는 약간의 소리도 없었다.

2012년 7월 26일, 펑메이는 아침에 화장실로 갈 때, 옆방 문 팻말 위에 ‘기구창고(器械庫)’라고 씌어져 있음을 보았다. 아래층의 한 방안에서 목 소리가 들려왔다. “리 주임(리춘직), 만약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해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리춘직이 당시 정원 안에 서서 눈이 시뻘게지는 것만 보였다.

유다 리아취안(李亞娟)은 “펑메이, 당신이 죽어도 이 CD 처럼 기록이 한 장 더 많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펑메이는 세뇌반에서 위협과 공갈 협박을 당해 2층의 창문에서 이래로 뛰어 내려 아래다리가 분쇄성골절로 되었고 요추가 부러졌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농사일도 할 수 없다.

용정 세뇌반에서, 연길시 조선족 파룬궁수련생 리기옥(李奇玉)은 잔혹한 박해를 당했다. 교박 36시간 동안 묶어 움직일 수 없었고 화장실로 가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팔 위에 큰 면적으로 손바닥만한 크기로 혈관이 파열된 반흔이 나타났다. 게다가 또 탈항되고 흉문 출혈, 씌어 문드러진 증상, 전신 부종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 후 화장실에 이끌려 갈 때 기절했다.

이러했음지라도 2012년 7월, 리기옥은 또 화룡 아동저수지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2014년 7월 21일, 리기옥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68세였다.



◇◇ 구경꾼이 없는 ‘천안문 분신자살’ ◇◇

[밍후이왕] 2014년 ‘10.1’ 연휴기간 친구들이 함께 모여 ‘천안문 분신자살’의 허점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A: TV에서 연출하자 나는 가짜임을 바로 알아차렸어.

B: 너 명탐정이 된 거야? 어떻게 단번에 알아 맞았어?

A: 잊었어? 구경하기 좋아하는 건 중국인의 일반적인 고질병이야. 어디에 일이 생기면 모두 둘러서서 구경하는데 경찰보다 더 많지. 그 사람들이

분신자살할 때 주변에는 경찰을 제외하고는 전부 군인이었는데 구경꾼은 왜 없었을까?

모두들 A는 ‘지다성(智多星-수호전에 나오는 지략이 뛰어난 오용의 별명: 역주)’이라는 별명에 손색이 없을 만큼 즉각 사건을 잘 해결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A와 달리 모두 파룬궁 진상을 알게 된 후에야 ‘천안문 분신자살’이 거짓이며 중국공산당이 연출한 살인극임을 알게 됐다.

분신자살 현장에는 경찰외에 군인밖에 없었다. 2004년 10월 16일, 호주<시대신문> 보도에서 중앙텔레비전방송국에서 제작한 분신자살 녹상에 대해 강렬한 질문을 했다. “경찰측에서 사전에 모른다고 했지만 오히려 90 초내에 대량의 소방설비를 갖고 화면에 나타났다.”